

## 沙川 沈齋의 시세계 연구

김 묘 정\*

< 目 次 >

I. 머리말	2. 진실한 교류에 바탕 한 이별의 서정성
II. 사천의 삶과 문집 개관	3. 여성 애도의 형상화와 도교적 사생관
III. 사천의 시세계 양상	IV. 맺음말
1. 탈속적 세계에 대한 갈망과 자기인식	

<국문 초록>

이 글은 小北八文章 중 한명인 沙川 沈齋에 대한 첫 연구로, 그의 삶의 행적과 문집 전체를 개관하고 시세계 양상을 규명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사천의 시세계에 대한 접근은 17세기 小北 문단과 小北八文章이라는 집단의 실상을 규명하고 문학적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 작업이다.

이에 필자는 전체 작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천 시세계의 특징적 양상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는 자기인식 과정에서 포착되는 탈속적 세계에 대한 갈망 양상이다. 이를 통해 사천의 의식세계 일부를 확인하였으며, 사천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탈속 공간인 仙境과 自然으로 진입해 속세의 번민에서 탈피하고자 했음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작가 고유의 정서가 표출되는 동시에 이별의 정한이 미적으로 승화되어 있는 送詩·贈詩를 기저로 작품의 시적 성취를 확인하였다. 사천의 送詩·贈詩는 작시 대상이 小北 문인이나 친인척에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88131momo@naver.com

한정되어 교류의 의미가 강한 편이며, 진실성을 구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는 小北八文章의 창작 경향성을 대변하는 挽詩 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특징적 면모인 여성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에 사천의 만시에 드러난 여성이 전통적 여성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천이 仙界를 제재나 배경으로 삼아 道敎的 死生觀을 표출했음을 고찰하였는데, 이 역시 사천 만사에서 포착되는 특징적 지점이다.

【주제어】 사천 심제, 소북, 소북팔문장, 자기인식, 송시, 만시

## I. 머리말

이 글은 沙川 沈濟(1597~1649)의 생애 및 작시 현황을 비롯해 그의 시 세계 양상을 확인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사천은 小北 문인으로 申濡(1610~1665년), 南飀(1609~1656), 李休徵(1607~1677), 任翰伯(1605~1664), 鄭昌胄(1606~1664), 朴守玄(1605~1674), 姜柏年(1603~1681)과 함께 小北八文章으로 지칭된 인물이다. 사천의 손자 沈柱漢이 작성한 『沙川集草藁』 「跋文」에는 소북팔문장의 관향과 관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들의 결속 양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소북팔문장은 기본적으로 詩壇을 형성하여 서로 문학적인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sup>2)</sup> 또한 晚洲 鄭昌胄(1606~1664)의 문집 『晚洲集』 가운데 姜銀(1650~1733)이 지은 「晚洲集序」에서도 당시 소북팔문장이 詩와 술로 막역한 교류를 이어나갔으

1) 沈濟, 『沙川集草藁』, 「跋文」, “沈沙川濟 豊山人 官至參判, 申竹堂濡 高靈人 官至吏判, 南滄溟飀 宜寧人 官至監司, 李麻菴休徵 廣州人 官至獻納, 任南谷翰伯 豊川人 官至校理, 鄭晚洲昌胄 草溪人 官至參議, 朴草亭守玄 密陽人 官至司藝, 姜雪峰柏年 晉州人 官至吏判諡文貞公. 八文章.”

2) 南飀, 『滄溟遺稿(乾)』, 「別泥翁南觀」, “海內吾兄弟, 詩壇早結盟(眞卿(천하의 우리 형제들, 시단에서 일찍이 약속하였네) 이 작품은 시제에 볼 수 있듯 남쪽으로 觀親가는 泥翁 申濡를 떠나보내며 지은 작품의 일부다. 聯句 형식으로 滄溟, 眞卿, 草亭이 2구씩을 번갈아 24구를 지었다.

며, 세상에서 모두 흠모하여 부러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소북팔문장의 시적 성취를 밝히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사천의 시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선차적으로 사천 삶의 행적을 비롯해 문집에 수록된 작품 전체를 개관하고자 한다. 사천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 장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천이라는 인물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장에서는 먼저 사천의 자기인식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현실과 이상의 간극 속에서 갈등했던 그의 의식세계를 밝히고자 한다. 사천은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탈속적 세계에 진입하여 속세의 갈등에서 초탈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이므로 해당 작품 분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이별의 정한이 미적으로 승화되어 있는 送詩·贈詩를 대상으로 사천 시세계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사천이 진실한 교류를 바탕으로 창작했기에 小北 인물들과의 교류관계를 일부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소북팔문장의 공통적인 창작 경향성이라고 논할 수 있는 挽詩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만시가 특징적이므로 여성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면밀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仙界로 대변되는 道敎의 死生觀이 포착되므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 II. 사천의 삶과 문집 개관

沙川 沈齊(1597~1649)의 본관은 豊山이며 자는 子美, 호는 沙川이다. 증조부는 沈守慶으로 聽天堂 右議政을 지냈다. 조부는 沈日將으로 察訪을 지냈으며, 부친은 沈關으로 戶曹正郎을 역임하였다. 모친은 黃暹(1544

3) 鄭昌胄, 『晚洲集』, 「晚洲集序」, “公少與吾先君文貞公及南滄溟, 申竹堂, 朴草亭, 任南谷, 沈沙川, 李麻庵. 爲詩酒莫逆之交. 一世欽艷焉.”

~1616)의 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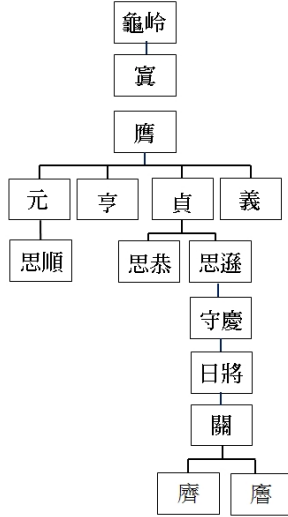


도표 1. 沙川 沈膺 家系圖

사천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면, 1624년(인조2) 28세에 生員試, 進士試에 급제했으며, 科詩로 <追頌功臣像>을 지어 會試에서 二下로 1등을 차지하였다. 1625년(인조3) 29세에는 洗馬에 제수되었고, 1628년(인조6) 32세 시절에는 別試 文科에서 賦, 論, 表로 각기 장원을 차지하였다.<sup>4)</sup> 1629년(인조7) 33세에는 謁聖文科에 장원으로 합격했으며<sup>5)</sup> 1630년(인조8) 34에는 別試文科에 급제했고<sup>6)</sup> 漢城府參軍에 제수되었다. 1631년(인조9)

4) 장원을 차지한 작품은 忠과 孝에 대한 내용을 담은 <泣拜畫像賦>, 常禮와 變禮를 三代 聖王之禮와 비교하는 동시에 당시 잘못된 廟制와 典祀에 대해 언급한 策問인 <問宗廟之禮序昭穆>, 제갈공명이 촉을 다스리는데 엄하고 혹독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밝힌 <治蜀尙嚴猛>이다.

5) 당나라 승상 宋璟등의 예를 통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린 表 형식으로 제목은 <擬唐丞相宋璟等 同日命 宴都堂>이다.

6) 거처함과 행위의 '쉬움'과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論으로 제목은 <死易立孤難>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선차적으로 '쉬움'과 '어려움'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후 勢의 관점과 人事의 관점을 통해 논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35세에는 典獄主簿, 戶曹佐郎을 역임했으며, 別試文科 漢城試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sup>7)</sup> 1633년(인조9) 37세에는 增廣別試 文科에서 丙科 2등으로 급제하고, 司書에 있었으며 持平을 지낸 바 있다. 1634년(인조12) 38세에는 正言을 지냈으며, 1636년(인조14) 40세에는 茂長縣令을 역임하였다. 1638년(인조16) 42세에는 弘文館 修撰과 獻納에 제수되었으며, 1639년(인조17) 43세에는 副校理, 獻納, 吏曹佐郎에 제수되었다. 1641년(인조19) 45세에는 吏曹正郎, 副校理를 역임하였다. 1642년(인조20) 46세에는 備邊司에서 將才로 천거되었으며, 副應教, 輔德에 제수되었다. 1643년(인조21) 47세 때에는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sup>8)</sup> 사헌부에서 사천이 보덕의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언급해 유배 보낼 것을 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1645년(인조23) 49세에는 潭陽都護府使에 제수되었으며, 1646년(인조24) 50세에는 重試 文科에 2등으로 급제하였다.<sup>10)</sup> 1648년(인조26) 52세에는 全州府尹을 역임하였으며, 1649년(인조27) 53세 1월 무렵 全州府尹 재임 도중 세상을 떠났다. 沙川 沈濟의 『沙川集草藁』 문집 현황을 확인해보면, 4권 2책으로 1777년경 그의 4대손인 沈柱漢에 의해 수집·간행되었

衆人과 志士를 나누어 설명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죽는 것이 오히려 쉬운 반면, 자신이 홀로 있을 때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 더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 7) 용병술 언급하면서 기병과 정병에 대해 논한 策問으로 제목은 <問用兵奇正>이다.
- 8) 鄭斗卿(1597~1673)의 작품 가운데 사천이 유배 가는 것을 전승하며 쓴 시가 보인다. 鄭斗卿, 『東溟集』, 2卷, <送沈子美謫臨陂 二首>, “主上仁天大, 流人數賜環. 男兒當益壯, 鬢髮不須斑. 遠向江濱路, 空瞻日下山. 明年紫泥詔, 碧落侍郎還.”, “去矣青雲士, 依然紫閣峯. 不知湘水上, 能與故人逢. 定有飛騰日, 何須憔悴容. 仲春雷雨作, 天用莫如龍.”
- 9) 『仁祖實錄』 44卷, <인조 21년 1월 22일 정사 2번째 기사>, “憲府啓曰, “不避夷險, 東西唯命, 乃臣子事君之大節也. 沈濟備蒙殿下拔擢之寵, 歷數清顯, 十年于茲, 所當竭誠殫力, 圖報萬一, 身命猶不可惜, 況於自便之計哉. 及除輔德之後, 偃臥私室, 久不出謝, 攀緣圖囑, 既不得售, 則費辭陳疏, 至舉衆所未聞之語, 眩惑天聽, 終於必遞後已, 凡在瞻聆, 莫不痛駭. 頃日都監之事, 不過一時偶然之舉, 非如蓄憾含怒之比, 在彼無更詰之端, 在此無可避之嫌, 濟乃執此, 以爲謀免之一階梯, 其爲心吁亦巧矣. 請命遠竄.” 上從之.”
- 10) 한나라 諫議大夫 夏侯勝의 일을 예로 들어, 임금께 간언하고도 징벌받지 않아야 함을 담은 表로 제목은 <擬漢諫議大夫夏侯勝 謝喻以無懲前事>이다.

다. 문집 편찬 경위를 살펴보면, 애초에 사천이 양적으로 많은 작품을 창작했으며 심주한의 아버지가 한 질의 책으로 엮은 바 있으나, 1715~1716년 사이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심주한이 남아있는 기록들을 모으고 오랜 친구 집에 흩어져 있던 것을 구해 분류한 후 4권 2책으로 재차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sup>11)</sup> 이렇게 본다면, 본래 사천이 남긴 문학 작품보다 『沙川集草藁』에 수록된 작품이 소략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남아있는 『沙川集草藁』를 바탕으로 문집 수록 현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沙川集草藁』 문집 수록 현황

문집 편제		수록 내용
『沙川集草藁』 乾	卷 一	七言近體 73제 79수, 七言排律 1제 1수, 七言古詩 5제 5수, 七言絶句 45제 58수
	卷 二	五言律詩 30제 30수, 五言排律 6제 6수, 五言古詩 3제 3수, 五言絶句 5제 5수
『沙川集草藁』 坤	卷 三	疏 5편, 劄 1편, 祭文 4편, 祝文 2편
	卷 四	序 3편, 현손 沈景普의 글 1편, 跋 2편, 策問 3편, 策題 1편, 論 3편, 表 4편, 箋文 2편

사천의 문집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시의 경우 168題 187首의 작품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산문의 경우에도 사천이 다양한 형식을 운용해 작품을 창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賦, 論, 表, 策問 형식으로 구성된 글이 장원을 차지한 것을 검토한 바 있으므로 사천이 여러 방면에서 문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형식 분류를 통한 작시 현황

형식	七言近體	七言排律	七言古詩	七言絶句	五言律詩	五言排律	五言古詩	五言絶句
시제	73	1	5	45	30	6	3	5
작품 수	79	1	5	58	30	6	3	5

11) 沈齊, 『沙川集草藁』, 「跋文」.

이 글은 사천의 시세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형식별로 분류해 작시 경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2를 기반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七言近體 40%, 七言排律 1%, 七言古詩 3%, 七言絶句 31%, 五言律詩 16%, 五言排律 4%, 五言古詩 2%, 五言絶句 3%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천이 七言律詩와 七言絶句 형식을 선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별로 분류하면 七言律詩의 경우 애도의 감정을 담은 挽詩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七言絶句 형식으로는 교류성을 바탕으로 하는 送別詩와 次韻詩가 주로 포착된다. 그러나 『沙川集草藁』 자체가 사천의 온전한 작품들을 모아 엮은 것이 아니라 散在해 있던 자료를 수합한 것이므로 그의 작시 경향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鄭斗卿(1597~1673)의 작품 두 편과 朴守玄(1605~1674)의 만시를 통해 사천의 문학적 재능과 삶의 단면을 유추해보고자 한다.<sup>12)</sup>

(1)

自憐西漢馬相如	전한 시대 사마상여 가련한데
臥病何年賦子虛	병들어 누워 어느 해에 자허부를 읊었던가
尙有凌雲舊時筆	구름 위로 솟구치던 지난날 필력 아직 남아 있을테니
贈君端爲一行書	그대에게 보낸은 단지 한 통의 서신 받기 위해서네 <sup>13)</sup>

(2)

梨花白雪正紛紛	배꽃 흰 눈처럼 분분하게 날리는데
上有和鳴春鳥群	그 위에 봄날 새들이 화답하며 지저귀네
貰得胡姬一樽酒	변방 여인이 파는 술을 사 와서는
停杯却憶沈休文	술잔 들다가 심휴문을 떠올려 보네 <sup>14)</sup>

12) 小北에 대한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천의 문학적 특징을 평가한 기록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小北八文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미발굴 자료들이 추후에 소개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13) 鄭斗卿, 『東溟集』, 3卷, <寄子美筆>.

14) 鄭斗卿, 『東溟集』, 3卷, <憶子美>.

(1), (2) 작품을 통해서 鄭斗卿이 사천을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했음을 엿볼 수 있다. (1) <寄子美筆> 1~2구는 뛰어난 문장가이자 賦에 능했던 司馬相如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구에서 제시한 <子虛賦>는 사마상여 작품 중에서도 漢賦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평가가 따르는 작품이다. 3구는 사마상여가 漢武帝에게 <大人賦>를 지어 바치자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凌雲) 기상이 있다.”라고 평한 일화를 배경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정두경이 사마상여와 관련된 전고를 제시해 사천을 사마상여의 반열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사천의 필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2) <憶子美> 작품은 배꽃 날리는 아름다운 봄날 새소리 들으며 술을 마시다 사천이 그리워져 지은 시이다. 주목할 부분은 정두경이 沈休文를 떠올려 본다고 언급한 4구이다. 이는 南朝 梁나라의 문인 沈約(441~513)을 언급해 사천과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약과 심제의 성씨가 동일하므로 이를 유희적으로 활용해 사천의 재능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 (3)

昔年初識面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부터
已見老成姿	노성한 자태 이미 보았는데
冠蓋聯雙壁	벼슬길에서는 쌍벽 이어져
聲名重一時	명망이 당대에 중대했고
典刑鵠列在	범도 있어 조정의 반열에서 섰네
詞翰雁行誰	시문에 짝할 사람 누가 있는가
貢禹彈冠喜	공우가 관을 털어 쓴 것처럼 기뻐었는데
遺書轉覺悲	남은 글 보며 도리어 슬퍼짐 깨닫는구나 <sup>15)</sup>

(3)은 小北八文章 중 한명인 朴守玄(1605~1674)이 사천을 애도하며 지은 만시로 五言律詩 3수 중 2번째 작품이다. 사천과 박수현이 각별한 관

15) 朴守玄, 『草亭先生遺稿』, <輓沈全州瘡>.

계를 유지했으므로<sup>16)</sup> 특히 이 만시에는 사천의 삶이 잘 응축되어 있다. 1~4구는 사천이 처음부터 노성한 자태가 있었으며 벼슬길에서 명성을 떨친 사실을 말한 것이다. 5~6구에는 조정 관료로 우뚝한 사천의 면모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문인으로 詩文에 뛰어났음이 드러나 있다. 7~8구는 王吉이 관직에 임명되자 친구인 貢禹도 덩달아 갖의 먼지를 털고 벼슬길에 나갈 준비를 했다는 일화를 차용해 박수현 자신 역시 사천이 관직에 임명되자 기뻐했음을 말한 것이다. 박수현이 사천과 사적 친분을 맺어왔고 만시라는 형식상의 특징으로 인해 예찬적 면모가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나, 사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 Ⅲ. 사천의 시세계 양상

#### 1. 탈속적 세계에 대한 갈망과 자기인식

이 장에서는 사천의 한시 작품을 통해 자기인식 면모를 확인하고 현실과 이상의 간극에서 갈등했던 그의 의식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파에서 비롯된 정치적 환난은 개인의 문학세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적 부침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던 小北<sup>17)</sup> 문인인 사천의 자기인식 면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천은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탈속적 세계에 진입하여 속세의 갈등에서 초탈하고자 하는 면

16) 朴守玄, 『草亭先生遺稿』, <酬寄沈司穉子直>.

17) 小北은 정치적 부침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혼란을 경험했다. 北人은 1599년 洪汝諱(1548~1609)의 대사헌 임명 사건을 시작으로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어 정치적 노선을 달리했다. 그 이후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 정권은 권력을 차지했고, 소북은 15년간 정치적으로 소외되면서 침체기를 겪었다. 1623년 이후 인조반정으로 소북은 몰락했으나 소북은 대북과 대립 노선을 택하면서 西人 아래서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정호훈,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 -17세기 北人系 南人을 중심으로』, 해안, 2004, p.107. 참조.

모를 보인다. 더불어 자연에 동화되어 한가한 탈속적 세계를 갈망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따라서 한시에 형상화된 사천의 자기인식 면모를 확인함으로써 그의 인식세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古道竟不行	옛 도를 끝내 행하지도 못했는데
人生亦有涯	인생에도 한계가 있구나
奈何名利子	어찌하여 명예와 이익 추구하여
紛纒競奢華	분주하게 화려함만을 다투었던가
所欲日不足	원하는 바는 날마다 모자라
夜枕不成寐	밤들어도 침상에서 잠 못 이루고
搥心訴深窞	억장 무너져 깊은 한 하소연 하려해도
嘖舌道盛美	혀 놀릴 적엔 성대함만을 말했네
喜懼所由分	기쁨과 노여움으로 나뉘는 것은
只在銖兩裏	다만 작은 차이 속에 있다네
靑溪雲臥翁	맑은 시냇가 구름 속에 누운 은자는
散髮眠白日	머리 풀어헤치고 대낮에 졸고 있고
終朝不見人	아침 내내 사람도 보이지 않으니
何由較得失	무슨 이유로 득실을 따지겠는가 <sup>18)</sup>

이 시는 <寓懷>라는 제목에 드러나듯 자신의 심회를 풀어낸 작품으로 형식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五言古詩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인식 면모가 선명하게 담겨있어 사천의 의식세계를 일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4구는 성현의 도를 실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던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생의 유한함은 사천이 삶을 반추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5~8구에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자신의 현실적 좌표를 상징하고 있는 사천의 모습이 포착된다. 대립하는 자아로 인해 정신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

18) 沈齊, 『沙川集草藁』, <寓懷>.

지 못하는 상황이 자기 분열 양상을 확장시키고 있다. 9~10구는 현실적 한계를 직시한 자신의 깨달음을 개진한 것으로 기쁨과 노여움으로 대변되는 상반된 감정이 작은 차이로 인해 양분됨을 언급하고 있다. 11~14구에 이르면 시상이 전환됨을 볼 수 있는데, 맑은 시냇가 구름 속에 한가롭게 누워있는 은자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현실과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난 은자는 사천이 추구하는 이상적 모습이자 곧 자신이다. 은자가 위치한 자연은 속세를 벗어난 신선 세계로 구현되어 있다. 이에 사천이 자신을 仙境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세속적 번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면모가 작품에서 드러난다.

結構危岩頂	위태로운 바위 꼭대기에 거처했으니
金仙是處安	금빛 신선은 이곳이 편안한가
試登猶太躁	시험 삼아 올라보면 너무 높아 흔들리는 듯 하고
遠望但長嘆	멀리서 바라보면 긴 탄식만 나올 뿐이네
細憶平生夢	평생의 꿈 속 세세히 떠올리다 보니
方知世界寬	세계가 넓음을 이제야 알겠으니
碧天雙手捧	푸른 하늘은 두 손으로 받들어질 듯 하고
滄海一杯看	창해는 일개 술잔처럼 보이네
未信眞仙在	참된 신선 있는지 믿기지는 않지만
從茲此理團	이로부터 이 이론 굳어졌는데
嬴皇會稽小	진시황 회계산 작아 보이고
周穆瑩臺殘	주 목왕의 벽대는 쇠잔하게 느껴지네
竟日忘塵土	하루 종일 풍진 세상 잊어버렸으니
因風整羽翰	바람결에 깃털을 가다듬어보네
人間誰可托	인간 세상에 누구한테 의탁할 수 있을까
簪紱永相拌	벼슬은 영원히 버렸다네 <sup>19)</sup>

이 작품은 <登絕頂>으로 높은 산에 올라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읊은

19) 沈齊, 『沙川集草藁』, <登絕頂>.

후 신선의 존재 양상과 그들이 거처하는 세계를 읊은 작품이다. 사천이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상적 세계인 仙境으로 들어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모두 극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구는 높게 깎아지른 산에서 금빛 신선으로 대면되는 석가모니를 마주한 후 위태로운 이곳이 어찌 편안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다. 5~8구는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이 평생토록 바랐던 꿈을 떠올리다 세상이 넓음을 도리어 깨달은 것이다. 9~12구는 신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진 후 신선 세계를 동경했던 이들의 흔적을 반추하며 자신의 감회를 개진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사천은 탈속적 세계로 대변되는 仙境을 선망했을 뿐이지 신선이 되기를 갈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3~16구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탈속적 공간인 仙境을 통해 안식을 추구하려 했던 사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천은 현실의 속박에서 자유롭기 위한 방편으로 仙境을 택했는데, 이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갈등하며 자신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내적 고통을 말해준다. 자기 인식 과정은 내적 갈망과 외적 현실의 부조화가 심화 될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작품에는 실존 의지와 仙境 진입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浮世滄桑閱幾迴	덧없는 세상 상전벽해 몇 번이나 거쳤던가
我今閑臥水雲隈	나는 지금 수운향 곁이에 한가롭게 누워보네
寒聲繞郭海濤立	쓸쓸한 소리 성곽을 에워싸니 파도 높아서이고
爽氣入簾山雨來	서늘한 기운 주렴 속에 스며드니 산비 내려서지
丹石橫邊春桂老	붉은 돌 비긴 주변에 봄 든 계수나무 늙었고
白沙明處野堂開	흰 모래 밝은 곳에 들 팔배 꽃 피었네
沉吟拂拭塵榻字	티끌 문은 문미의 글자 닦아내고 가만히 읊조리니
千古詩情月一杯	천고의 시정은 달 아래서 한잔 드는 술이라네 <sup>20)</sup>

20) 沈齊, 『沙川集草叢』, <官居漫詠>.

이 작품은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관청에 머물며 본인의 생각을 마음대로 읊은 시이다. 1~2구에는 부귀공명의 허무함을 깨닫고 자연에 동화되어 한가한 정취를 느끼고 있는 사천의 모습이 담겨있다. 은자가 사는 곳으로 대변되는 탈속 공간인 수운향 굽이에 누워 현실 세계에서 초탈한 면모를 보인다. 3~6구는 은자가 머무는 곳의 풍경을 그려낸 것으로 자연 그 자체에서 탈속의 정취를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일의 풍류적 면모는 7~8구에서 고조되는 양상인데, 탈속적 세계인 자연 속에서 술을 기울이며 심미 취향을 발휘하고 있다. 사천에게 있어서 탈속 공간은 자연 그 자체라고도 판단되며, 詩情을 발휘하게 하는 기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不願生作青雲客	태어나 고관대작이 되어
金章赤紱競相逐	금 인장 붉은 인끈 다투어 쫓길 원하지 않았고
不願生作五侯客	태어나 권세가 되어
奴顏婢膝爭局促	아첨하고 굽히며 다투어 엽매이는 것 원하지 않았네
只愛佳山水煙霞窟	아름다운 산수 안개 노을 지는 골짜기에서
對酒長歌自浪跡	술잔 들고 길게 노래하며 방랑하는 삶을 아낄 뿐이네
去年作尉古長沙	지난해 잠시 전라북도 고창에서 벼슬을 할 때
正值兵塵暗南國	바로 전쟁 일어나 남국이 암담하였네
仙山咫尺阻仙賞	지척 거리의 신선 산 선경 감상조차 막혔는데
鹽課軍書日羈束	군서에 적힌 과세가 날마다 속박하는 구나 <sup>21)</sup>

...(후략)...

이 시는 小北八文章 중 한명인 任翰伯(1605~1664)에게 준 七言古詩 작품으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4구에는 사천의 자기인식 과정이 담겨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생을 계획하면서 애초에 고관대작이나 권세가가가 되기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천의 삶의 행적을 통해 보았을 때 늘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상

21) 沈齊, 『沙川集草藁』, <次柳進士韻贈別任進士慶翼翰伯>.

정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심화된 내적 갈등 양상을 대변한다. 5~6구에서는 사천이 飲酒와 樂曲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탈속적인 풍류를 추구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사천은 자연 그 자체를 탈속적 공간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7~8구는 사천이 1636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茂長縣令을 역임할 때 丙子胡亂으로 압당했던 지난날을 반추한 것이다. 9~10구를 통해서도 사천이 전쟁으로 인해 仙山의 仙境 감상조차 자유롭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천은 자신의 이상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탈속적 풍류를 즐기며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 2. 진실한 교류에 바탕 한 이별의 서정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문학적으로 승화하는 것은 특정 시대에 국한됨 없이 지속된 일반적인 창작 경향이다. 그에 따라 送別·寄贈의 과정에서 이룩된 작품은 작가 고유의 정한과 슬픔을 대변하는 동시에 이별의 고통이 미적 시어로 승화되어 언어 미학적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천의 送詩와 贈詩는 대체로 작자의 감정이 시상을 지배하고 있어 본연의 진실성과 아름다움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적 면모로 인해 사천의 작품은 館閣風의 느낌을 주기보다는 친밀감에 바탕을 두고 있어 교류의 의미가<sup>22)</sup> 강하다. 그에 따라 사천의 送詩·贈詩를 통해 교류관계 및 小北八文章과의 관계를 일면 파악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떠나보내는 대상에 대한 稱揚과 禮讚 형태가 아니므로 형상화 방법 측면에서 정중한 어투를 사용해 經書의 구절이나 역사적 典故를 차용해<sup>23)</sup> 쓴 送詩·贈詩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선차적으로 『沙

22) 이남면, 『鄭斗卿의 교류관계와 교유시』, 『고전과 해석』 12집, 2012, p.35, 참조.

『川集草藁』 중에서 送詩를 추출하고 이별의 정한이 담긴 贈詩만을 선별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 3. 送詩·贈詩 작시 현황

연번	제목		수량	형식	종류	대상/관향/관계
1	送朴士彬守文赴盈德	영덕으로 가는 사빈 박수문을 전송하며	1	7언율시	송시	朴守文/密陽/小北
2	奉次伯氏韻-送許次山還漢水舊居	백씨 심노 시에 차운하다 - 예전에 살던 한강으로 돌아가는 허겸을 보내며	1	7언율시	송시	沈濟/豊山/형許謙/陽川
3	長沙送友人任進仕慶翼之湖南節度營	장사에서 호남 절도영으로 가는 친구 진사 임경익을 보내며	1	7언율시	송시	任翰伯/豊川/小北八文章
4	走筆贈晉陽柳將軍豪傑道別	주필로 진양 유장군 호걸에게 주고 길에서 이별하며	1	7언고시	송시	유장군/미상
5	次柳進士韻贈別任進士慶翼翰伯	유진사 시에 차운하여 진사 임경익의 한백에게 주다	1	7언고시	증시	任翰伯/豊川/小北八文章
6	敬次峨山李尙書韻伏呈伯氏	삼가 아산 이상서 시에 차운하여 백씨한테 바치다	1	7언고시	송시	沈濟/豊山/형
7	別權叔平	권숙평과 이별하며	6	7언절구	송시	權尙準/安東
8	次任進士慶翼贈韻別壺陰	진사 임경익에게 준 시에 차운하여 호음과 이별하다	1	7언절구	송시	壺陰/미상
9	寄金甌山晦卿	증산 김회경에게 부치다	1	7언절구	증시	金光燦/安東/金尙憲의 조카
10	早春送愼哉南遊寄許次山	이른 봄에 남으로 여행하는 신재를 전송하는 편에 허차산에게 부치다	2	7언절구	송시	愼哉/미상許謙/陽川
11	走寫便面送申子猷徽赴平安幕府	면전에서 빨리 써서, 평안막부로 나아가는 자유 신취를 전송하며	1	5언율시	송시	申徽/平山

23) 이광소, 『陽村 權近의 館閣風 送別詩 研究』, 『고전과 해석』 18집, 2015, p.185.

연번	제목		수량	형식	종류	대상/관향/관계
12	秋城別金族姪個 赴舉入洛	추성에서 과거보러 서울로 들어가는 족질 김척과 이별하며	1	5언율시	송시	金侗/族姪
13	贈戒皓上人	계호 스님에게 주다	1	5언율시	증시	강천사의 戒皓 스님
14	驢別伯氏	백씨와 전별하고	1	5언율시	송시	沈膺/豊山/형
15	贈送權叔平	권숙평을 진송하며	1	5언율시	송시	權尙準/安東
16	秋城送金族姪個 赴舉入洛-臨別書 贈便面	추성에서 족질인 김척이 과거보러 서울로 들어감을 진송하며 -이별할 때 써 주다	1	5언절구	송시	金侗/族姪

사친의 送詩·贈詩 작품 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16題 22首로 집계되며 전체 작품 대비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작시 대상은 주로 小北 인물이며, 이별의 대상이 중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작품이 친인척이나 자신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인물로 편중되어 있어 사친의 送詩·贈詩는 사교적인 색채가 강함을 볼 수 있다.

年來慣作送行詩	여러 해 동안 송별시 짓는 것에 익숙해졌다지만
況復今朝別爾時	하물며 또 오늘 아침은 너를 이별하는 때이니
異姓天倫從少日	성씨 다르나 천륜의 형제처럼 지낸 것 어려서부터이고
同來地角若前期	땅끝에서 함께한 것 이전부터 기약 한 듯 했네
三秋鴈去浮雲外	가을 기러기 뜬구름 저 너머로 떠나가니
千里人愁瘴海湄	천리에 사람은 장기 서린 바다에서 수심 겨워하는데
未到瀟橋腸已斷	과교에 이르기도 전에 창자 끊어지려 하니
不知楊柳爲誰垂	버들은 누구를 위해 늘어졌는지 모르겠구나 <sup>24)</sup>

이 작품은 예전에 살던 한강으로 돌아가는 許巘(1609~?)을 보내며 쓴 시로 자신의 형인 沈膺(1590~1664) 시에 차운한 것이다. 1~2구는 送詩

24) 沈膺, 『沙川集草藁』, <奉次伯氏韻-送許次山還漢水舊居>.

짓는 작시 행위 자체에 익숙해진 자신이지만, 여전히 허겁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음을 언급함으로써 송별 대상과의 애뜻함을 드러낸 것이다. 허겁과의 이별 앞에서 느낀 생경한 감정은 아쉬움을 짙게 만들고 있다. 3~4구에는 허겁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는데, 성씨가 다르지만 어려서부터 동성의 형제처럼 깊은 우애를 유지해 온 사실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사천이 친밀한 관계를 기저로 送詩를 창작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5~6구는 情景融化가 이뤄진 부분으로, 뜬구름 너머로 떠나가는 기러기와 장기 서린 바다가 이별의 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7~8구는 이별의 공간으로 대변되는 灞橋에 이르기 전 이미 깊은 이별의 고통과 마주한 사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이별을 상징하는 버들을 언급했는데, 이별할 때 꺾어주는 버들이 누구를 위해 드리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부분에서 헤어짐을 거부하는 사천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城霧矇朧起曙鴉	새벽 까마귀 일어난 안개 자욱한 도성 속
旅人將發駕輕車	가벼운 수레에 멩에 매고 나그네 떠나려 하네
千絲官柳初經雨	천 가닥 관가 버들가지에 비 막 지나는데
一樹棠梨未放花	한 그루 팔배나무 꽃은 아직 피지 않았네
海上別來勞遠夢	바닷가에서 이별한 것 먼 꿈속 일 같은데
江南歸去憶誰家	강남으로 돌아가서는 누구의 집을 그리워하겠는가
憑君莫問春消息	그대여 봄소식 묻지 마시게나
獨對清罇鬢慾華	홀로 맑은 술 대하니 머리 희어지려 하네 <sup>25)</sup>

이 시는 장사에서 호남 절도영으로 가는 任翰伯(1605~1664)을 전송하며 쓴 작품이다. 임한백은 小北八文章 중 한 명으로 사천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 외에도 임한백을 대상으로 삼아 쓴 시가 여러 수 포착되기 때문이다.<sup>26)</sup> 이 작품은 특별히 시 서문이 덧붙여 있어

25) 沈齊, 『沙川集草藁』, <長沙送友人任進仕慶翼之湖南節度營>.

26) 沈齊, 『沙川集草藁』, <次柳進士韻贈別任進士慶翼翰伯>, <戲任進士重索酒>, <次任進士慶翼贈韻別囊陰>

작시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다.

“…(전략)… 임한백은 넓고 큰 바다에서 큰 낚시질 하다 잠시 봉래를 떠나왔는데, 온갖 학파에 정밀하고 뛰어났으며 문단에서 이름을 날렸다. 전생·이승·저승에서 지상의 신선으로 삼았으니 풍류를 넘어선 것이 운허관 같았다. …(후략)…”<sup>27)</sup>

서문은 내용상 크게 세 문단으로 일별 가능한데<sup>28)</sup> 위 인용문은 두 번째 단락의 일부로 임한백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사천이 진실한 교류를 바탕으로 送詩를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사천이 임한백의 문학적 성취를 높게 여기고 신선의 반열로 올려둔 사실을 알 수 있다. 小北八文章 문인 중 한명인 임한백의 문집이 남아있지 않아 그의 문학세계를 해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했을 때, 사천의 이 같은 견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시를 분석해보면, 1~2구에는 안개 자욱한 도성 속 풍경과 길 떠나려는 나그네의 모습이 시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이별의 시공간이 드러난다. 3~4구에는 이별을 상징하는 버들과 팔배나무가 배경으로 등장해 헤어짐을 암시하고 있다. 흰 배꽃이 피기도 전에 떠나가는 임한백을 아쉬워하는 사천의 정서가 드러난다. 5~6구는 이별한 것이 아득해진다고 언급함으로써 벌써 찾아온 짙은 그리움을 읊은 것이다. 7~8구를 통해서 이별 앞에서 초연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8구의 ‘淸罇’이라는 시어는 이별의 정한을 풀기 위한 도구 역할을 담당하지만, ‘獨對’라는 부분에서 임한백에 대한 애정 섞인 원망이 느껴진다.

27) 沈齊, 『沙川集草藁』, <春夜醉別任進士慶翼翰伯之湖南節度營詩序>. “…(전략)…任公大釣滄海, 少別蓬萊, 九流精華, 擅詞場之妙譽. 三生塵土, 作平地之神仙, 卽度風流如雲虛館. …(후략)…”

28) 詩序의 첫 번째 단락은 봄밤에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이별을 앞둔 계절적 풍경의 아름다움을 설명한 부분이다. 두 번째 단락은 임한백의 뛰어난 문학적 자질과 풍모를 예찬한 것이며, 세 번째 단락은 이별을 앞둔 새벽 풍경과 작별하는 상황을 쓴 것이다.

(1)

久客偏傷別	오래 사귀 그대와 이별하는 것 몹시 슬픈데
臨歧況暮年	더군다나 노년에 이별하는 갈림길 앞에 섰구나
不禁雙淚迸	흐르는 눈물 주체할 수 없으니
寧惜一杯傳	한잔 술로 이별하는 것 어찌 사양하겠는가 <sup>29)</sup>

…(후략)…

(2)

落葉寒聲動九秋	나뭇잎 떨어지는 쓸쓸한 소리에 가을 깊어지고
暮天烟雨暗沙洲	저문 하늘에 안개 비 내려 모래톱 어둑하네
傷時更若思人恨	마음 상해 다시 이별의 한스러움 생각하며
日夕悠悠獨倚樓	밤 들도록 유유히 홀로 누각에 기대있네 <sup>30)</sup>

(1)은 權尙準를 전송하며 준 작품으로, 五言律詩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4구를 통해 사친이 권상준과 긴 세월 동안 깊은 친분을 맺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는 七言絶句 형식으로 창작된 <別權叔平> 6首 중 4번째 작품이다. 사친은 권상준과 이별하며 6首를 지었는데, 특히 이 작품에는 이별의 정한이 서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시적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에 그려진 시공간은 모두 쓸쓸함과 그리움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속에서 들리는 낙엽 소리, 저문 하늘의 안개비, 어둑한 모래톱이 권상준과의 이별을 더욱 애처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처럼 사친의 送詩는 대체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창작되었기에 형식적인 館閣風 작품과 달리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29) 沈齊, 『沙川集草藁』, <贈送權叔平>. “久客偏傷別, 臨歧況暮年. 不禁雙淚迸, 寧惜一杯傳. 驛路寒烟外, 城陰積雪邊. 如逢驄馬史, 道我白潭顛.”

30) 沈齊, 『沙川集草藁』, <別權叔平> 其四.

### 3. 여성 애도의 형상화와 도교적 사생관

挽詩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슬퍼하고 망자를 애도하기 위해 짓는 문학 작품으로 일반적인 시 형식이나, 小北八文章의 특징적인 창작 경향 중 하나로 추정된다. 소북팔문장은 대체로 양적으로 많은 작품의 만시를 창작했으며, 다채로운 방식을 활용하여 시를 형상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사천의 문집을 개관해보면, 전체 168題 187首의 작품 가운데 76題 87首가 만시에 해당하므로 47%라는 높은 비중의 창작 양상을 보인다. 사천의 만시 작품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2)</sup>

표 4. 挽詩 작시 현황

연번	제목	수량	형식	대상
1	昭顯世子挽詞	1	7언율시	소현세자
2	挽李持平克仁	1		이극인
3	挽崔承旨有海	1		최유해
4	挽許樂安靖母夫人趙氏	1		낙안 허쟁 모부인 조씨
5	挽趙持平公淑	1		조공숙
6	挽陸孤石長欽	1		목장흠
7	挽李承旨惟聖	1		이유성
8	挽盧咸平后高母夫人	1		함평 노후설 모부인
9	挽柳僉正內子宋氏	1		침정 유씨 아내 송씨
10	挽僉正洪世忠	1		홍세충
11	挽同知姜弘重	1		강홍중
12	挽鄭同志子修之羽	1		정지우
13	挽崔魯望內子李氏	1		최노망 아내 이씨
14	挽金兵使俊龍	2		김준용
15	挽李監役久涵	1		이구함
16	挽參奉李震發	1		이진발
17	挽韓子明女	1		한자명 딸
18	挽柳汝舟	1		유여주
19	挽南僉知啓夏	1		남계하

31) 小北八文章 중 滄溟 南翮은 153首의 전체 작품 중 118首를 만시로 창작했으며, 草亭 朴守玄은 800題 931首의 전체 작품 중 163題 179首의 만시를 지었다.

32) 이 글은 沙川 沈濟(1597~1649)에 대한 첫 연구이므로 그의 만시 작품을 모두 개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집 수록 순서대로 만시를 정리하였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만시는 확인이 용이하도록 진하게 표하였다.

연번	제목	수량	형식	대상	
20	挽再從弟曹漢相	1		조한상	
21	挽柳太僕正滄內子嚴氏	1		유심 아내 엄씨	
22	挽金主簿璉	1		김진	
23	挽天微翁李必行	1		이필행	
24	挽洪參判震	1		홍영	
25	挽李監司夫人柳氏	1		이감사 부인 유씨	
26	挽人	1		不記名	
27	挽洪參奉銑	1		홍선	
28	挽申丈	1		신씨 어른	
29	挽黃汝和	1		황여화	
30	挽德茂令	1		덕무령	
31	挽沈叔丈汝始	1		십여시	
32	挽尹淳昌	1		윤순창	
33	挽權生相夏	1		권상하	
34	挽許礪山稊	1		허제	
35	挽李尙書溟	4		이명	
36	挽金參判榮祖	1		김영조	
37	挽韓興君李英男	1		이영남	
38	挽宋靈光良賁	1		송양분	
39	挽金古阜迪	1		김적	
40	挽許僉知	2		허첨지	
41	李蔚珍之英挽	1		이지영	
42	挽洪掌令	1		홍집	
43	成參奉時亮母夫人挽	1		성시량 모부인	
44	挽徐永平內子	1		서영평 아내	
45	挽許太初肇	1		허조	
46	挽任司評誨之	1		임희지	
47	挽柳僉知內子李氏	1		유첨지 아내 이씨	
48	仁烈王后長陵哀挽	1		7언매울	인열왕후
49	挽沈叔丈闡	3		7언절구	심위
50	挽權文伯母夫人元氏	2			권문백 모부인 원씨
51	挽金公州孝誠女子	2			김효성 딸
52	挽金重胤內子成氏	2			김중윤 아내 성씨
53	挽李生容	1			이용
54	挽金進士士元內子	2			김사원 아내
55	挽李連山信源內子鄭氏	1			이신원 아내 정씨
56	挽申僉知萱	1			신훤
57	挽嚴參奉可誠	1			엄가성
58	挽尹起之大人汝徵	1			윤여징 아버지
59	挽金有慶母氏沈氏	1			김유경 어머니 심씨
60	挽金井邑自晦母夫人具氏	1			김자희 모부인 구씨
61	挽羅佐郎茂春乃子	1	나무춘 아내		

연번	제목	수량	형식	대상
62	悼朝雲月課	1	5언율시	조운
63	挽成通禮時憲內子	1		성시헌
64	挽柳星山丈	1		유성산 어른
65	挽尹淳昌	1		윤순창
66	永昌大君挽詞	1		영창대군
67	挽金注書信行改葬	1		김신행
68	挽南參議汝昂內子金氏	1		남여양 아내 김씨
69	挽李朔寧命達內子	1		이명달 아내
70	挽朴鐵原內子李氏	1		박철원 아내 이씨
71	挽鄭奉事光前	1		정광전
72	挽安延安昶內子俞氏	1		안창의 아내 유씨
73	挽申同福起漢	1	5언배율	신기한
74	挽吳正字添慶	1		오첨경
75	挽尹楊根應之	1	5언고시	윤응지
76	挽尹監司鳴殷	1	5언절구	윤명은

위 표를 토대로 대상을 나눠보면, 사천이 주로 선후배, 동료, 친구를 비롯하여 여성을 애도하는 작품을 창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작 대상 측면에서 특징적인 면모는 여성을 대상으로 22題 26首의 만시를 지었다는 것인데, 전체 만시 작품 대비 30%의 양적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만시가 여타 문인들의 작품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sup>33)</sup> 독특한 양상임을 감안했을 때 특징적인 면모라고 생각된다. 그에 따라 여타 문인들이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주로 자신의 아내나 자식에 한정하여 만시를 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사천은 창작 대상을 知人の 大人, 夫人, 大夫人, 祖母로까지 넓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시적 표출 양상을 살펴보면, 인식 방법에 따라 巫俗的 사생관, 性理學的 사생관, 道敎的 사생관, 基督教의 사생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sup>34)</sup> 사천 작품의 경우 도교적 사생관이 일부

33) 여타 문인들의 여성 대상 만시 작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색은 56제 76수의 작품 중 15제를 여성 대상 만시로 지었으며, 이충인은 19제 20수 중 2제를 창작했다. 정도전은 9제 중 2제, 권근은 31제 가운데 6제, 이직은 17제 20수 중 4제, 서거정은 40제 중 6제를 여성 대상 만시로 창작했다. 이항은 11제 중 1제, 조식은 15제 중 3제의 작품을 여성을 대상으로 만시를 지었다. 김분청, 「변계량의 輓詩에 나타난 여성의 시적 형상화」, 『민족문화논총』 60집, 2015, p.22.

포착된다. 우리나라의 만시의 경우 성리학적 사생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대다수이므로 仙界에 대한 시적 형상화 양상은 특기할 만하다.

이에 먼저 사천 만시 중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사천의 만시에 형상화된 여성들이 전통적 여성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경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보편적으로 여성을 애도한 만시의 경우 아내의 전통적 역할인 婦道·婦德을 비롯해 어머니로서 지켜 온 규범을<sup>35)</sup> 담아냄으로써 개인적 성격의 稱揚으로 경도된 양상을 보인다.<sup>36)</sup> 그러나 사천 작품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관한 내용이 포착되기도 하지만, 여성이라는 고정된 이념에서 일부 이탈한 면모를 보인다. 더 나아가 사천은 稱揚을 주된 애도 방식으로 삼은 만시의 한계인 진정성 결여 지점을<sup>37)</sup> 극복하고 있으므로 작품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

一世英豪見博陵	한 시대의 영웅호걸 여러 무덤에서 볼 수 있겠지만
宜家淑德孺人稱	현숙한 덕으로 집안 꾸린 이 이씨 부인을 칭함이네
早年湖海風流盡	일찍이 호해의 풍류 다 사라져 버렸으니
半樹梧桐血淚凝	반쯤 남은 오동나무에 피눈물 영기는구나 <sup>38)</sup>

…(후략)…

34) 최재남, 『한국 애도시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p.225.

35) 김분청, 「변계량의 輓詩에 나타난 여성의 시적 형상화」, 『민족문화논총』 60집, 2015, p.15.

36) 최재남은 애도시의 구성에서 稱揚의 내용을 크게 개인적 성향의 칭양과 사회적 성격의 칭양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성격을 보이는 칭양은 悼亡詩와 哭子詩에서 주로 포착되며 悼亡詩에서는 집안 살림을 맡은 아내의 婦德을 드러낸 경우가 많음을 밝힌 바 있다. 최재남, 『한국 애도시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p.138.

37) 만시 창작이 본격화되고 관습화되면서 칭양을 내적 정서로 삼은 작품의 경우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의례적인 형식으로 변모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 만시는 대체로 유대관계보다는 정탁에 의해 양산되는 현상을 보인다. 윤재환, 「玉洞李敎의 挽詩를 통해 본 朝鮮朝 挽詩의 일양상」, 『韓民族語文學』 65집, 2013, p.350.

38) 沈齋, 『沙川集草藁』, <挽崔魯望內子李氏>.

(2)

中丞矯矯大夫賢      중승 뛰어나고 대부 어질지만  
 舊日家聲令女傳      지난날 가문의 명성은 여자로 전해지는구나  
 淑德早宜君子配      현숙한 덕 지녀 일찍이 군자의 배필로 마땅했고  
 妙譽曾見主家專      젊을 때부터 남편 집안에 힘쓴 것 보았네<sup>39)</sup>

…(후략)…

먼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만시 중 보편성과 특수성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사천 만시의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은 崔魯望의 아내이자 李慶祺(1554~1632)의 딸<sup>40)</sup> 李氏의 만시로, 七言律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2구는 현숙한 덕으로 집안을 이끌어간 이씨 부인의 婦德을 강조한 것인데, 영웅호걸로 대변되는 남성과 여성의 행적을 같은 반열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구에서 역시 이씨 부인의 호기를 호해의 풍류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기개를 형용했다는 점에서 전통적 여성상에서 강조했던 부분과는 일면 다르다. (2)는 小北인 柳滄(1608~1667)의 아내 嚴氏를 애도한 작품이다. 유념은 小北의 영수인 柳永慶(1550~1608)의 증손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천이 소북 집안과 교유관계를 맺으며 친밀감을 바탕으로 만시를 창작했음을 볼 수 있다. 작품을 살펴보면, 1~2구에는 여성 대상 만시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애도한 만시에서 주로 포착되는 가문의 명성에 대한 언급이<sup>41)</sup> 확인된다. 가문의 명성이 여자로 전해진다는 내용은 전통적 여성상을 내세운 만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3~4구에서는 여전히 여타 여성 대상 만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전통적 여성상이 확인된다. 작품을 통해 보

39) 沈膺, 『沙川集草藁』, <挽柳太僕正滄內子嚴氏>.

40) 金尙憲, 『淸陰集』 30卷, 「墓碣銘 十四首」, <司憲府掌令李公墓碣銘 并序>. “生一男五女, 男際可, 卽問銘者. 女適僉知李倪·正郎沈傑·副提學俞伯曾·士人申懷·崔魯望.”

41) 남성을 대상으로 애도한 만시의 경우에는 가문의 명성, 지위, 업적, 청렴하고 근검한 태도, 인품, 관직 수행 능력 등에 관한 언급이 많다. 김분청, 「변계량의 輓詩에 나타난 여성의 시적 형상화」, 『민족문화논총』 60집, 2015, p.15.

았을 때 사천의 만시는 보편성을 모두 극복하지 못한 채 보편성과 특수성의 경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肅靖名家長主孫	엄숙한 명문가의 맏손녀
于歸又是相公門	유 상공의 가문에 시집 오셨네
眈看彤管通前史	동관의 기록 자세히 살펴보니 이전 역사와 이어지고
每侍芳茵聽至論	언제나 곁에 모시며 고매한 말씀 들었네 <sup>42)</sup>

…(후략)…

(2)

	…(전략)…
可但徽言絕	어찌 아름다운 말만 끊겼겠는가
無憑世德陳	대대로 내려오는 덕 따르려 해도 물을 데가 없구나
後生唯有淚	후생은 눈물만 흘릴 뿐이니
寄酒暮江濱	저물녘 강가에서 슬픈 만시 보내는구나 <sup>43)</sup>

다음으로 여성 망자의 살아생전 行誼를 稱揚하는 형태를 보이는 작품을 살펴 사천 만시의 특징적 면모를 추출하고자 한다. (1)은 僉正 柳氏 아내인 宋氏의 만시로 七言律詩 가운데 수련과 함련을 발취한 것이다. 稱揚 방식을 살펴보면, 명문가 맏손녀임을 강조해 여성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궁중의 정령이나 后妃들에 관한 기록인 동관을 언급해 송씨 부인을 그와 같은 반열에 올려두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4구에서는 망자를 稱揚하면서도 사적 기억을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천이 진정성 있는 만시를 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는 安昶(1552~미상)의 아내 俞氏를 애도한 작품으로 五言排律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7~18구를 살펴보면, 사천이 ‘徽言’과 ‘世德’을 강조해 유씨 부인의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높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천은 관습적인 稱揚으

42) 沈齊, 『沙川集草藁』, <挽柳僉正內子宋氏>.

43) 沈齊, 『沙川集草藁』, <挽安延安昶丙子俞氏>.

로 경도되지 않았는데, 19~20구에 드러나듯 비통한 감정을 가미하여 망자를 애도함으로써 진실성을 구비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사천의 여성 만사에서 포착되는 독특한 면모는 道教的 死生觀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한국 애도시는 주로 性理學的 사생관을 바탕으로 하므로,<sup>44)</sup> 仙界를 언급한 도교적 사생관은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이에 선계를 제재나 배경으로 삼아 사생관을 표출한 사천의 만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卅載春光劇逝川	삼십 년 좋은 시절 흐르는 물처럼 빠르네
十洲仙路杳無邊	십주의 선경 길은 아득해 끝이 없네
可憐膝下諸兒在	가련하구나, 슬하에 여러 자식이 있어
遺却人間未了緣	남겨둔 채 인간 세상과 인연 끝맺지 못하겠구나 <sup>46)</sup>

## (2)

桂宮仙夢渺難追	계수나무 월궁의 신선 꿈 아득하여 따르기 어려우니
三十潘郎鬢已衰	삼십 즈음에 반약의 귀밑머리 이미 세었네
樂棘又悲身似寄	수척한 상주의 처량한 신세 더욱 슬프니
庭前不見小兒嬉	뜰 앞에 어린아이 재롱 차마 보지 못하겠구나 <sup>47)</sup>

사천의 만시 작품에서 仙界는 기본적으로 인간 세계와 구별되는 세계

44) 성리학적 사생관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만시를 창작하는 이들이 주로 儒家에 속하며, 유가들이 대부분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남, 『한국 애도시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p.229.

45) 도교적 사생관을 담은 작품이 잘 포착되지는 않으나, 여타 작품의 경우 봉래산을 사후세계로 상징한 경우가 확인된다. 李春英(1563~1606)은 만사에서 “봉래섬 약속 천만리에 다시 만나자구나(蓬島弱水千萬里 再結來回)”라고 했으며, 朴允默(1771~1849)은 “봉래산 어느 곳에서 취한 신선이 되었을까(何處蓬壺作醉仙)”라고 만시를 창작한 바 있다. 최재남, 『한국 애도시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p.233.

46) 沈膺, 『沙川集草藁』, <挽金公州孝誠女子> 其一.

47) 沈膺, 『沙川集草藁』, <挽金進士元內子> 其一.

이며, 이상적인 사후세계로 상징되어 있다. (1)은 公州 金孝誠(1585~1651) 딸의 만시로 2首 가운데 其一에 해당한다. 1구를 살펴보면, 만시의 대상인 김효성의 딸이 삼십여 년을 끝으로 생을 마감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구는 신선이 거주하는 곳으로 팔방의 큰 바다 가운데에 있다는 十洲(祖洲·瀛洲·玄洲·炎洲·長洲·元洲·流洲·生洲·鳳麟洲·聚窟洲)의 선경을 제시한 부분이다. 사천은 인간 세계와 구분되는 신선 세계를 제시하되 그 세계를 영원할 뿐 완벽한 사후세계로 상징하지는 못했다. (2)는 進士 金士元(1539년~1601) 아내의 만시로 2首의 작품 가운데 其一을 발췌한 것이다. 이 작품 역시 계수나무가 있는 월궁을 제시하고 신선 꿈을 언급해 선계를 사후세계로 상징하고자 했으나, ‘渺難追’라는 부분에서 사천이 구체적인 사후세계를 설정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仙界 형상화를 통한 도교적 사후세계 제시 양상은 사천의 여타 만시에서도 포착된다. 權相夏를 애도한 작품에는<sup>48)</sup> 계수나무와 벽도화가 등장하며, 再從弟 曹漢相을 애도한 만시에는<sup>49)</sup> 三洞教主가 사는 최고의 仙境인 三清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그러나 이들 작품 역시 선계가 이상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동경의 세계로 작용할 뿐 완벽한 사후세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48) 沈齊, 『沙川集草藁』, <挽權生相夏>. “才調猶驚俗士群, 論詩不肯下開元. 虛堂夜雨含杯酒, 古國秋風見淚痕. 丹桂影遙遺恨在, 碧桃吟罷謾聲吞. 楚山南望千峰矗, 何處騷人招斷魂.”

49) 沈齊, 『沙川集草藁』, <挽再從弟曹漢相>. “兄年三十弟初生, 此日誰知先此行. 俊秀早爲群季最, 髻齡已有老成名. 莫言地下妻孥樂, 爭似人間父母情. 應遣孤魂化冤鳥, 月明花發哭三清.”

#### I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小北八文章 중 한명인 沙川 沈濟의 생애를 정리하고 문집 전체를 개관함으로써 그의 시세계 양상을 고찰하였다. 사천의 시세계에 대한 접근은 17세기 小北 문단과 小北八文章이라는 집단의 실상을 규명하고, 문학적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 작업이다. 그러나 小北 중에는 八文章 외에도 七學士<sup>50)</sup>, 五君子<sup>51)</sup>라고 하여 문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문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문인에 대한 연구 자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미시적인 연구 성과 축적을 통해 결과적으로 小北八文章이라는 집단지성의 특징과 문학적 지향점을 해명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거시적 시야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사천 시세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그의 작품이 지니는 특징적 양상을 추출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포착되는 특징은 자기인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탈속적 세계에 대한 갈망 양상이다. 작품 분석을 통해 사천이 탈속 공간인 仙境으로 진입해 자신의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자 했음을 규명하였다. 사천에게 있어서 탈속적 공간은 自然 그 자체라고도 판단되며, 詩情을 발휘하게 하는 기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작가 고유의 정서가 표출되는 동시에 이별의 정한이 미적으로 승화되어 있는 送詩·贈詩를 중심으로 작품의 시적 성취를 확인하였다. 사천의 送詩·贈詩는 작시 대상이 小北 문인이거나 친인척에 한정되어 교류의 의미가 강한 편이며, 진실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로는 小北八文章의 창작 경향성을 대변하는 挽詩 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특징적 면모인 여성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50) 南以恭(1565~1640), 金蓋國(1572~1657), 李必亨(1571~1607), 朴彝叙(1561~1621), 宋馭(1557~1640), 崔東立(1557~1611), 朴慶業(1560~1626)

51) 宋瓊(1676~1741), 尹彙貞(1676~1754), 嚴慶遂(1672~1718), 李庭緯(1678~1758), 嚴慶遐(1678~1739)

밝혔다. 이에 사천의 만시에 드러난 여성이 전통적 여성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고정적인 전통적 여성상에서 일부 이탈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천의 만시는 여타 문인의 작품과 구별된다. 더 나아가 사천의 작품은 稱揚을 주된 정서로 삼은 여타 만시가 지니는 진정성 결여 지점을 극복했기에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사천이 仙界를 제재나 배경으로 삼아 道敎的 死生觀을 표출했음을 고찰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性理學的 死生觀을 바탕으로 구성된 만시가 대다수를 차지함을 감안했을 때 독특한 면모라고 판단된다.

사천의 시세계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특징적 지점은 도가적인 색채가 작품을 통해 표출된다는 점이다. 小北七學士 중에서도 南以恭(1565~1640), 金蓋國(1572~1657), 朴彝叙(1561~1621), 宋駟(1557~1640) 등이 仙道文學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sup>52)</sup> 이들의 문학 세계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리라 추정된다. 더 나아가 北人들의 사상적 특징과도 일면 결부되는 양상이라고 여기는데, 북인들은 성리학에서 벗어나 도가, 불교, 양명학 등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花潭 徐敬德(1489~1546)과 南冥 曹植(1501~1572)의 도가적 학풍을<sup>53)</sup>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小北 개별 문인들의 충분한 연구 축적을 토대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다음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52) 손일환, 『조선시대 박시림·박률·박이서·박노·박수현 삶의 행적과 묘역의 금석문』, 서화미디어, 2013, p.67.

53) 이진경, 「근기 남인의 도가사상 연구」, 『유학연구』 36,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6, pp.320-321.

〈參考 文獻〉

- 『仁祖實錄』(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金尙憲, 『淸陰集』(한국문집총간 77집)  
南翹, 『滄溟遺稿』(宜寧南氏直洞文集刊行會 소장본)  
朴守玄, 『草亭先生遺稿』(密陽朴氏泌川公派宗中 소장본)  
沈濟, 『沙川集草藁』(서울역사문화포럼 영인본)  
鄭昌胄, 『晚洲集』(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본)  
鄭斗卿, 『東溟集』(한국문집총간 100집)
- 손일환, 『조선시대 박시립·박물·박이서·박노·박수현 삶의 행적과 묘역의 금석문』, 서화 미디어, 2013.
- 서울역사문화포럼, 『서울역사문화인물발굴총서; 1 沙川集草藁』, 선학사, 2015.
- 정호훈,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17세기 北人系 南人을 중심으로』, 혜안, 2004.
- 최재남, 『한국 애도시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 김분청, 「변계량의 輓詩에 나타난 여성의 시적 형상화」, 『민족문화논총』 60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 윤재환, 「玉洞 李敍의 挽詩를 통해 본 朝鮮朝 挽詩의 일양상」, 『韓民族語文學』 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 이광소, 「陽村 權近의 館閣風 送別詩 研究」, 『고전과 해석』 18집, 고전문학한문학회 연구회, 2015.
- 이남면, 「鄭斗卿의 교유관계와 교유시」, 『고전과 해석』 1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연구회, 2012.
- 이진경, 「근기 남인의 도가사상 연구」, 『유학연구』 3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 Abstract

### *A Study of Sacheon Simje(沙川 沈齊)'s Poetic World*

Kim Myo Jung \*

This writing is the first research of Sacheon Simje(沙川 沈齊); not only reviewing his life and overall anthology but also clarifying whole appearance of his poems. The approach on the poetic world of Sacheon is prerequisite for investigating the real situations of the groups of Sobuk(小北) and Sobukpalmunjang(小北八文章) of the 17th century and finding literary achievements.

The first approach is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aspiration for the unsecular world caught in the process of having self-awareness. Through it, some of the conscious world of Sacheon were found. It was identified that he attempted to escape from secular anxieties by entering unsecular space as the sacred boundary and nature, in a bid to resolve inner conflicts. The second approach is to explore poetic achievements of works, based on poems composed and dedicated that special sentiment the author has is expressed and at the same time the grief of farewell is sublimated aesthetically. Sacheon's poems composed and dedicated tend to assume a strong meaning of interchanges since the objects of his poems are limited to the Sobuk literary group or their relatives and in-laws relatives and his poems imply sincerity. In that sense, they are of significance. The third approach is to review the pattern of poetic imagery of particular aspects of women, by examining poems expressing lamentation of the dead that represent the tendency of creation of the Sobukpalmunjang group. There is also the approach on taoistic views of life and death that Sacheon expressed, selecting the sacred world as a subject or background. This is a specific viewpoint without exception.

---

\* A doctorate course f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Dankook university; completed the doctoral course / 88131momo@naver.com

【Key words】 Sacheon Simje(沙川 沈齋), sobuk(小北), Sobukpalmunjang(小北八文章), self-awareness, poem of farewell(送詩), memorial poems(挽詩)

투고일 : 5월 18일, 심사완료일 : 6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19일